

신양(信陽)문화재단 정석규(鄭哲圭) 이사장을 찾아서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제3호 편집위원회

1. 탐방을 시작하는 말

3년 전에 우리 명예교수회보를 창간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대학 당국의 주선으로 신양문화재단 정석규 이사장의 지원을 받았다.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정석규 이사장의 나눔의 생활이나 대학발전기금에 동문으로서의 참으로 많은 액수의 돈을 희사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다. 2008년은 신양문화재단을 설립한 지 만 10년이 되는 해라는 것과, 지난 3월 초에는 서울대학교 신양인문학술정보관을 준공하여, 기부채납하였다는 고무적인 소식도 들었다. 그런가 하면 그 무렵에 정석규 이사장은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업적이 인정되어 한국공학한림원으로부터 공학한림원 대상을 수상하였다는 기쁜 소식도 들려 왔다.



정석규 신양문화재단 이사장

다. 최근에 정석규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명예교수회보를 서울대학교 모든 현직 교수들에게도 나누어 주느냐고 물으면서 정년퇴직하였으나 아직도 학술활동을 활발하게 계속하고 있는 명예 교수들의 모습을 후배 교수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우리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발행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제3호에 정석규 이사장을 방문하고 그 탐방 기사를 게재하기로 하였다. 필자와 이동녕위원이 지난 4월 7일 오후 2시에 신양학술정보관 4층에 위치한 신양문화재단 이사장실을 방문하여 탐방 기사를 작성하였다. 정석규 이사장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작은 나눔의 삶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사양하는 겸손한 말씀을 하였으나 우리는 그로부터 입수한 많은 선행과 미담을 여기에 정리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2. 올해는 신양문화재단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

신양(信陽)은 정석규 이사장(1952년 공대 화공학과 졸업)의 아호이다. 이 아호를 붙여서 만든 신양문화재단은 1998년 12월 1일(등기일자 12월 24일)에 기본재산 5억 5천만 원으로 설립된 장

학재단이다. 우수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불우한 학생에게 자활 보조금을 지급하고, 교육기관과 학술연구단체에 학술연구비를 지원하며, 나아가서 산업기술 분야의 문헌·정보자료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출범한 문화재단이다.

정석규 이사장의 삶의 신조는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반드시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남을 도우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런 그의 삶의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정 이사장께서는 그동안 391명의 장학생에게 7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교육기관과 학술연구단체에 11억 1천만 원을, 기술문헌 정보 및 기타 사업비로 2천 8백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정 이사장은 자신이 졸업한 공대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08년의 경우를 보면 간호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인문대학, 음악대학, 자연과학대학 등 인문계 및 이공계 모든 단과대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골고루 지급하였다. 이는 정석규 이사장의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서울대학교가 세계 정상급 대학이 될수 있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다.

올해 12월 신양문화재단은 설립 10주년을 맞이한다. 재단 설립 이후 기본재산도 해마다 조금씩 증자하여 지금은 기본재산이 153억 원에 이르는 재단으로 발전하였다. 이 재단의 연혁을 살펴 보면 1998년 12월 24일에 재단 설립 허가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취득하였다. 2000년 11월 14일에 재단 신사옥(영등포 당산동 소재)을 매입하고 이듬해 1월 6일에 입주하였다. 2002년 7월 29일에는 장학생의 인터넷 공개선발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2004년 2월 28일에는 서울대충동창회관에서 재단 설립 5주년 기념식을 거행한 바 있다. 물론 매년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



2008년도 신양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고 찍은 기념사진(2008. 2. 29)

고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단체의 지원사업을 계속해 왔다.

정 이사장은 이렇게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장차 우리나라의 일꾼으로 성장·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자신의 보람이고 기쁨이라고 강조한다.

3. 대학발전기금을 비롯한 각 기관에 기부한 내역

정석규 이사장은 나누는 삶이 바로 후세에 남겨질 아름다운 유산임을 믿는 분이다. 그는 이미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한 발전기금이 110억 원이 넘는가 하면 그 외에도 신양의학연구기금(10억 원), 신양문화재단(153억 원), 한국고무학회기부금(8억 원), 한국로터리장학재단(5억 원), 국제로터리기부금, 노인복지회관 기타 종교·사회단체 기부금 등 기부금 총액이 약 290억 원에 이른다. 아직은 기부 문화가 싹도 안 보이는 우리 현실에서 그의 이러한 기부 행위는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과 잔잔한 감동을 전한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기부활동이 미래의 풍요로운 사회 건설과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성장할 우리 대학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가치 있는 투자이며 보람된 유산을 남기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1999년에 하버드대를 방문한 정 이사장은 그 대학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는 100여 개의 크고 작은 도서관이 모두 독지가나 동문들이 기부한 돈으로 지어진 것을 보고 이것이 오늘날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 초일류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이 여행에서 돌아와 정 이사장은 모교 발전기금에 출연하여 전자도서관 구실을 하고 있는 공과대학 '신양학술정보관'을 건립하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금년 3월 7일에는 '신양인문학술정보관'을 준공, 개관식을



서울대학교 신양인문학술정보관 개관식(2008. 3. 7)

거행한 바 있다(앞의 사진). 그는 지금도 제3호 '신양학술정보관'의 건립 자금을 적립하면서 나눔의 삶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정 이사장은 신양인문학술정보관 개관식에 참석하고 인사말을 통하여 “저는 재벌도 아니지만 지난 10년 동안 저의 재력으로서는 힘겨운 정도의 기부 행위를 실천해 왔습니다. 남들이 놀고 잠자는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벌은 재산을 아무런 대가성도 없이 남을 위하여 기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략) 힘들게 벌은 재산을 후손에게 상속시켜 무익하게 소멸하는 것보다는,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는 것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선진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며 아름다운 유산을 후세에 남기는 것입니다”라고 자기의 기부에 관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필자는 그의 이런 아름다운 생각이 훈훈한 바람을 타고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또한 이 정보관이 서울대학교가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 정보관을 이용한 학생 중에서 하루 속히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하기를 바란다.

4. 고무인생 50년, 봉사인생 40년

정석규 이사장은 1929년 9월 28일에 경남 하동군에서 한의사이신 정환운 씨의 5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46년에 부산공립공업학교 응용화학과를 졸업했다. 1948년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고등부 2년을 수료하고 1952년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57년에 동 대학원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51~1967년까지 보생산업(주)에서 근무하였고 1964~1967년까지는 진해전지(주) 대표이사로 겸직하였고, 1967년에는 태성고무화학(주)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1년까지 재임하였다. 그는 또한 1966년부터 여러 해 동안 관련 학회나 협회의 장으로 지도자적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1996년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동창회장으로 선임되었고 2000년에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고 현재 (재)관악회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1952년에 공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고무산업에 진출한 우리나라 최초의 엔지니어로서 50년간의 고달픈 고무인생을 용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치고 2001년에 직업전선에서 은퇴하였다.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분야에서 언제나 최고(TOP)의 존재가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무인불승(無忍不勝), 지성감천(至誠感天)이라는 행동지침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 16년간의 기술직 사원을 거쳐 1967년에 공업용 고무제품 전문 생산 기업인 태성고무화학(주)을 설립하여 34년간 독자적으로 이 회사를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켜 왔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고 타인의 자본 투자도 없이 오로지 독자적인 힘으로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대기업으로 성장시키지는 못하였다. 기술전진(技術前進), 품질봉사(品質奉仕),

총화단결(總和團結)을 사시로 삼고 정부의 중소기업 전문화 및 계열화 시책에 호응하여 앞서가는 기술 개발력을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집약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용 고무부품의 국산화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국가의 기간산업인 자동차, 전자, 전기, 음향기기, 방직, 기타 산업분야 모기업의 계열화 업체로서 고무부품을 개발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그 당시 수입에 의존하던 고무부품을 국산화함으로써 큰 외화 절감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수출용 제품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외화 획득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부품 자체를 수출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들 제품의 특징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정밀도와 품질을 요구하는 부가가치가 높고 외화 가득움이 높은 제품이었다. 따라서 기술력이 빈약한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생산하기가 어려워져 동업자들의 경쟁을 피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회사는 적절한 이윤 추구도 달성할 수가 있었다.

그때 기업 운영에서 얻어진 소득은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하여 기업을 성장시켜 왔으며 자본금 1,500만 원으로 설립한 회사를 34년 동안에 자산 규모가 약 150억 원의 중견 중소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성공하였다.

1990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노사분규의 영향으로 모든 회사가 큰 진통을 겪었으며 계열화 모기업에 대한 부품 공급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약 3년간 기업 발전에 악영향을 받았으나 그 후 노사 협력이 잘 타결되어 기업의 성장을 지속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1998년에 정 이사장은 예기치 못한 후두암 4기라는 선고를 받고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기업활동이 어렵다고 생각되었고 운영을 자손에게 이양하는 것도 적합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M&A에 의한 기업체의 양도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1년 8월에 그 실현을 보게 된 것이다.

기업의 양도 당시에 건실한 재무구조 이외에 축적된 기술력과 회사 브랜드의 무형가치도 아깝다고 느꼈지만 인수자가 기업을 계속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주기를 바라는 대국적인 마음으로 정 이사장은 주식을 저평가하여 미련 없이 양도해 버린 것이다. 그 이후에 양수자가 공장 설비에 고액의 재투자를 하고 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로 생각된다.

정 이사장께서 1951년에 처음 고무산업계에 입문하였을 때는 대학에서 고무학을 지도하는 교수도 없었고 공장에서도 지도해 줄 선배 기술자도 없었다. 우리말로 된 고무관계 단행본도 없었고 기술관련 자료도, 아무것도 없는 시대였으니 외국 서적과 기술자료를 참고로 하여 기본 학문을 습득하고 현장에서 실지 실험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선진국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1956년에 미국 국무성 ICA 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여 6개월간 미국 내 고무공장 기술을 습득하였고, 1958년에는 5개월간 유럽 지역 고무공장의 기술을 습득할 기회도 가졌다. 1961년에는 서독의 Bayer 회사 고무화학부에서 4주간 국제고무기술 강습을 받은 일도 있었다. 그 후 유럽,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고무공장 견학을 통하여 다양한 고무산업 현장을 견학하고 기술정보를 입수하는 등 힘겨운 독자 여행을 강행해 왔다. 그가 일제시

대 공업학교와 해방 후 서울공대 시절에 배운 영어 실력으로 혼자서 외국 여행이나 기술 습득을 하기에는 힘든 점이 많았으나 다른 사람에 의존할 수도 없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독자적인 연수 활동을 강행하였다.

정석규 이사장은 유난히 상복이 많은 기술인 겸 경영자였다. 1961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그가 개발한 제품에 대한 특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경제기획원장관상(1961), 대한화학회 기술진보상(1964)을 받았다. 그후에도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였다. 대통령 표창(1972), 동탑산업훈장(1981), 한국고무학회 기술공로상(1981), 대통령 수출의탑 표창(1984), 국제청장 표창(1986), 재무장관 표창(1991) 등을 수상하였다. 한편 그는 한국로터리장학문화재단으로부터 '초아의 봉사인' 칭호를 받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로부터는 관악대상을 받았고, 모교로부터는 자랑스러운 공대 동문상,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등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CEO 특상, 국제로터리의 특별공로상, 역대 모든 서울대학교 총장으로부터의 감사패 등 정석규 이사장실에는 100여 개가 넘는 상패와 훈장증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그는 말한다. 젊었을 때 탄 상은 앞으로 더욱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격려이고, 늙어서 타는 상은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 남은 여생 기쁨을 누리며 나눔의 삶과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며 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이다.

“분노를 한 곳에 모아 두면 악취를 풍기지만 발에 끌고루 뿌려주면 토지를 비옥하게 하여 곡식을 수확한다. 재물도 마찬가지다. 너무 많이 쌓이면 화가 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정 이사장은 강조한다.

가족으로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부인 이경숙 여사(78세)와 3남이 있다. 장남 정종근 씨(56세)는 태성고무화학(주) 상무이사로 재직하였고, 차남 정종원 씨(54세)는 신양문화재단 기획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삼남 정종수 씨(52세)는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5. 제12회 한국공학한림원 대상 수상

앞에서 정 이사장의 훈·포장 수상 내역을 언급한 바 있거니와 그분께서는 지난 3월 10일에 제12회 한국공학한림원 대상을 받았다.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런지 모른다. 하지만 정작 정 이사장은 이 상을 받을 만한 업적을 수립하지도 못했는데, 다른 더 훌륭한 과학기술인이 이 상을 수상해야 되는데 매우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한다. 해방 후 고무공업 분야의 기술 수준이 매우 취약할 때 정규 공과대학을 졸업한 기술인으로서 최초로 고무산업에 입문하였고 정부의 중소기업 전문화 및 계열화 정책에 호응하여 고무인생 50년을 살아오는 동안 오로지 전자 및 자동차 산업을 위시한 각종 공업용 기능성 고무부품의 국산화에 전념한 공적이 인정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상의 의미는 과거에 축적한 지식과 기술과 재물을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봉사하라는



제12회 한국공학한림원 대상을 수상하던 날(2008. 3. 10)

것으로 알고 남은 여생 동안 나눔 생활과 봉사활동에 전념하여 고무산업 분야 전문 서적을 발간 함으로써 “세계 제7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고무산업을 더욱 발전케 하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있는 정 이사장에게 존경심을 금할 수가 없다. 그분의 표현대로라면 이 상이 정 이사장 일생에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상일런지 모르겠다. 2008년 전반기에 정 이사장이 누리게 된 여러 가지 경사를 축하하는 마음 그지 없다.

6. 탐방을 마치는 말

정석규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난 다음 우리는 아쉬운 마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제한된 지면에 어떻게 그의 이런 품격 높은 생애를 충실하게 다 소개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 이사장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누가 이렇게 나눔의 생활을 일생 동안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정 이사장의 표현대로 가진 것이 썩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는 마음이 대단히 풍요로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정 이사장 만큼 대학발전기금에 출연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누어 주며, 관련 학술단체를 지원하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내 각 단과대학에 한두 사람만 있다고 하면 우리 대학이 머지않아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한편으로는 10년 전에 정 이사장께서 후두암을 앓은 다음 그 분은 자기의 약해진 건강을 염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80세에 이른 나이를 생각하면서 각종 기부 행위나 나눔의 삶을 더욱 서두

르고 있는 듯한 인상도 받았다. 그가 지금까지 그 많은 선행에 사용한 돈은 결코 없어졌거나 버린 돈이 아니다. 오히려 그 돈만이 참다운 정 이사장 자신의 재산이고 지금 정 이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돈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그가 많은 액수의 돈을 썼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어준 건물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가슴 속에 영원히 아로 새겨져 있을 것으로 믿는다. 누가 그랬던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정 이사장께서는 자기의 빛나는 이름을 영원히 남겼으니 가히 성공한 삶을 누린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젊은 학창시절에 배운 “예술은 길고 人生은 짧다”, “시간은 金이다”, “좋은 서둘러라”는 등의 격언을 행동지침으로 삼아왔으나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건강과 시간이 아쉽다.

자신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분의 아름다운 삶에 신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한다(한인규 · 이동녕).

훈훈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명예교수들의 제자 사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제3호 편집위원회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소속 여러 명예교수님들은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극진하다고 소문이 났다.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많은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아낌 없는 나눔의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액수가 많건 적건 간에 정년퇴임 후에 발생하는 소득을 전부 장학금이나 상금으로 투입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제자 사랑 얘기는 각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훈훈하게 하는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생물교육과 소속 이웅직, 김준호, 장남기, 정해문 명예교수님 네 분의 제자 사랑 미담을 소개하기로 한다. 추후에 교내 다른 학과 명예교수님들의 장학금 기탁 소식도 접수되는대로 계속적으로 이 회보에 소개하기로 한다.

1. 고 이웅직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식물학과에서 이학 박사를 취득한 후